



서동설화의 역사적 진실

The Historical Truth of the Seodong Story

저자 (Authors)	Kim Ki-heung
출처 (Source)	역사학보 205 , 2010.3, 159-190(32 pages) The Korean Historical Review 205 , 2010.3, 159-190(32 pages)
발행처 (Publisher)	역사학회 THE KOREAN HISTORICAL ASSOCIATION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1452127
APA Style	(2010). 서동설화의 역사적 진실. 역사학보, 205, 159-190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25.137.52.*** 2019/10/29 15:14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서동설화의 역사적 진실*

金 基 興**

- | | |
|-------------------------|------------------------------|
| I. 머리말 | Ⅲ. '무왕 조' 설화의 변형 과정 |
| Ⅱ. 『삼국유사』 '무왕 조'의 내용 검토 | 1. 민담의 변형과 탄생 신화의 결합 |
| 1. 탄생 신화 | 2. 서동왕 민담과 미륵사 창건 전설
의 결합 |
| 2. 혼인 민담 | Ⅳ. 맺음말 |
| 3. 미륵사 창건 전설 | |

I. 머리말

『삼국유사』 '무왕 조'는 서동설화 또는 무왕설화로 불리며 관련된 많은 연구들이 나와 있으나, 본래 설화였던 자료에 대한 시각 차이 때문에 연구자들 간 인식에 괴리가 작지 않다. 최근 미륵사지석탑 사리봉안기가 출토되어 미륵사 창건 발원자로 백제 귀족 출신 사택씨 왕후가 드러났으나, 설화 속 신라 선화공주가 무왕의 왕비였을 가능성을 생각하며 이 설화의 사실성에 기대를 거는 역사 연구자들이 적지 않은 실정이다.

한편, 국문학계에서는 서동설화의 혼인담이 한·중·일에 널리 분포되어 있는 소

* 이 논문은 2009학년도 건국대학교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건국대학교 사학과 교수

위 '내복에 산다'계 설화 유형에¹⁾ 속하는 민담임을 밝히고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이 유형은 신화적 속성을 가지고 있어 연원이 오래되었으며,²⁾ 불전(佛典) 설화의 영향도 있었다고 한다.³⁾ 역사상의 이해에 일부 문제도 있으나 경청할 만한 견해들이 적지 않다.

근자에 한국고대사학계에서 '무왕 조' 설화에 대해 수편의 논문이 제시되었다. 사료의 제약 속에 새로운 방법론이 찾아지지 못하고 타 분야에 대한 관심도 부족한 가운데 연구가 진행된 면이 있다. 따라서 원론적 과제이기도 한 설화 형성의 주체와 동기, 주인공의 실체 그리고 설화의 구조와 변형 과정 등에 대하여 여전히 수렴된 인식을 얻지 못하고 있다.⁴⁾

역사학과 국문학계의 관련성과를 검토 원용하여 '무왕 조'의 내용과 구조를 종합적으로 재분석함으로써, 남겨진 중요 과제들에 대해 체계적인 이해를 얻도록 하여 이 설화를 둘러싼 제 역사적 진실을 알아보고자 한다.

II. 『삼국유사』 '무왕 조'의 내용 검토

『삼국유사』 '무왕 조'는 탄생 신화, 혼인 민담, 미륵사 창건전설로 구분해 볼 수 있다.⁵⁾ 순서대로 부호(㉠-㉣)를 매겨 내용을 번역하여 제시하고 검토하겠다.

- 1) 현승환, 「내복에 산다'계 설화 연구」(제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2), 1쪽. 이 유형은, 누구 복에 사느냐고 묻는 부친의 물음에 자신의 복에 산다고 하여 쫓겨난 딸이 가난한 숲 장이를 만나 부부로 살다가 금덩이를 발견하고 부자가 된다는 내용의 설화다. '쫓겨난 여인 발복 설화', '복 많은 여자계 민담', '무왕계 민담', '내복에 산다 형 민담', '여인 발복 설화' 등으로 불린다 한다.
- 2) 현승환, 같은 논문, 7쪽; 김대숙, 「평양·신화전승의 신화적 성격」 『논문집』 8 (평택대학교, 1996), 61쪽.
- 3) 황인덕, 「내복에 먹고 산다'형 민담과 '삼공본풀이' 무가의 상관성」 『어문연구』 18 (어문연구학회, 1988), 117쪽.

1. 탄생 신화

‘무왕 조’는 무왕의 탄생 신화로 시작된다.

- ㉠ 제30대 무왕의 이름은 장(璋)이다. 그 모친이 과부로 서울 남쪽 못가에 집을 짓고 살던 중 그 연못의 용과 관계하여 낳았다. 아명을 서동(薯童)이라 하였는데 그 도량이 커서 헤아리기가 어려웠다. 항상 마를 캐어 팔아서 생활하였으므로, 국인이 이에 의하여 이름으로 하였다.⁶⁾

이류교혼(異類交婚)의 신화 형태를 보여준다. 이러한 아래자(夜來者) 유형은 견훤 출생 설화에서도 확인된다. 장(璋)은 거룩한 용의 아들이어야 하니 모친도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과부로 나온다.⁷⁾ 단군·주몽·견훤 등에서 유사한 사례를 볼 수 있다. 신화적 모티브의 하나로써 성스런 존재는 ‘처녀의 아들’ ‘과부의 아들’로 태어나야, 인간의 아들이 아닌 신성한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장은 용의 아들로 왕이 될 수 있는 신성한 자임을 말하고 있다. 무령왕을 개로 왕의 아들로 다소 작위적으로 연결한 무령왕 탄생 설화를⁸⁾ 보면 백제 후기 왕위계

4) 신종원, 「사리봉안기를 통해 본 삼국유사 武王條의 해석」 『미륵사 사리장엄 연구의 쟁점과 전망』 (한국학중앙연구원 동아시아역사연구소, 2009), 23~40쪽에서는, 한국고대사학계의 ‘무왕 조’ 이해에 있어서 보여 온 설화의 역사화 오류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 지적하고 국문학계의 연구 등을 인용하여 설화자료를 이용한 역사 연구 방법론을 모색하여 시사를 주고 있다.

5) 최운식, 「무왕설화의 정착 과정」 『석주선교수 회갑기념 민속학논총』 (통문관, 1971), 75쪽; 현승환, 앞 논문, 149쪽.

6) “第三十武王 名璋 母寡居 築室於京師南池邊 池龍交通而生 小名薯童 器量難測 常掘薯蕷 賣爲活業 國人因以爲名” 『삼국유사』 권2, 기이, 무왕.

7) 『삼국유사』 권3, 法王禁殺 조에는 璋의 貧母라고 나오나, 장의 모친이 실제 가난한 과부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인다. 설화인 만큼 그녀의 처지를 빈천하게 묘사하여 흥미를 돋우고 자 한 것일 듯하다. 그녀는 상당한 고위 귀족 가계 출신일 가능성이 있다.

승에서 혈통이 매우 중시된 정황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자료를 근거로 지룡(池龍)을 법왕과는 계보를 달리하는 익산에 한거한 왕족으로 해석하여, 장을 몰락한 왕족의 아들로 보는 것은⁹⁾ 재고할 필요가 있다. 사실성 여부는 별도로, 장이 단 순히 왕족 출신임을 말하기 위해 탄생신화가 형성 유포되지는 않을 듯하다. 그가 서출 왕자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 이 설화는 일단 그가 왕의 아들이라 말하고 있다고 보인다.¹⁰⁾ 이 신화는 무왕의 즉위를 전후한 시기에 유포되었을 것이다.

이이의 아명은 서동이다.¹¹⁾ 중국이나 한국에서 아명을 천하게 짓는 풍습이 있기도 하다.¹²⁾ 그런데 서동이란 아명은 국인이 불러서 되었다고 하였다.

이 왕은 '고본'에 무강왕으로 되어있었는데 일연(一然)은 무왕이 맞다하여 고쳤다.¹³⁾ 미륵사 창건 연대와 진평왕 등을 참작하여 백제 무왕으로 단정했을 것이다. "제30대 무왕의 이름은 장(璋)이다"도 상징적 표현을 구사하는 본래 신화에는 물론 '고본'에도 없었을 듯하다. 설화 주인공을 무왕으로 확신한 일연이 넣은 것 같다. '고본'에는 '무강왕'이나 '마한 무강왕'으로 표기되었을 듯하다. '고본'은 통일신라기 신라인의 편찬물일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진다. '고'의 관념이 그렇고,¹⁴⁾ 고려 초에 백제 무왕설화가 정리될 계기나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그리고 '고

8) 『日本書紀』 권14, 雄略天皇紀 5년 4월 및 5월조; 오계화, 「백제 무령왕의 출자와 왕위계승」 『한국고대사연구』 33 (한국고대사학회, 2004), 260~269쪽 참조.

9) 노중국, 『백제정치사연구』 (일조각, 1988), 194쪽.

10) 강봉원, 「백제 무왕과 '서동'의 관계 재검토」 『백산학보』 63 (백산학회, 2002), 154쪽. 서동과 무왕은 동일인이 아니며 설화인 '무왕 조' 보다는 『삼국사기』 백제본기를 취하여 무왕을 법왕의 아들로 간주하였다.

11) 『삼국유사』 왕력에는 "或 小名 一者篩德"이라 하였다. 기이편의 '무왕 조'를 의식한 표현이다. 자료의 성격상 왕력편이 전하는 무왕 소명의 신빙성이 더 높다고 여겨진다.

12) 顔之推/林東錫 역, 『顔氏家訓』 風操篇 (고즈원, 2004), 89쪽.

13) 「武王[古本作武康 非也 百濟無武康]」 『삼국유사』 권2, 기이, 무왕.

14) 또 하나의 큰 문제이고 아울러 지면 관계상 사례를 들어 말할 수는 없지만, 고려의 지식인들은 일부 예외가 있으나 고려 보다 앞에 있었던 왕조시기를古로 인식하여 표기하고 고려 왕 조내의 앞 시기를舊로 표기하는 경향이 있는 듯하다.

본'에 있었던 설화 구성과 『삼국유사』 '무왕 조' 내용도 대동소이할 가능성이 높다. '고본'이 있으니 '금본(유행본)'이 있을 듯하지만 '고기'가 있다하여 유행 서책이 반드시 있는 것은 아니다. 『삼국유사』 '법왕금살 조'의 왕흥사(미륵사)¹⁵⁾ 관련 제주에 서는 '무왕 조' 내용을 축약한 듯한 내용의 전거를 '고기'라 말하기도 하였다.¹⁶⁾ 따라서 일연이 '고본' 이외의 의미 있는 저본을 가졌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본다.

무강왕은 『동국여지승람』 익산군 미륵사 조에도 보인다.¹⁷⁾ 본장 제3절에서 제시할 '무왕 조'의 자료 ㉠과 거의 같은 미륵사 창건 전설이 나오는데 '입국마한'한 무강왕과¹⁸⁾ 선화부인이 등장한다. 무강왕은 『고려사』 지리지와 『세종실록지리지』, 『동국여지승람』에 익산 쌍릉의 묘주로도 말해졌다.¹⁹⁾ 이 책들에 의하면 쌍릉의 묘주인 왕은 후조선 무강왕이며²⁰⁾ 속칭 말통대왕이라고 했다. 『고려사』 지리지는 말통대왕이 백제 무왕이며 서동이란 설도 전한다. 쌍릉은 후조선 무강왕 묘라는 설

15) 일연은 『삼국유사』 '무왕 조'와 '법왕금살 조'에서 왕흥사와 미륵사를 같은 절로 인식하고 있다.

16) “與古記所載小異 武王是貧母與池龍通交而所生 小名薯蕷 卽位後謚號武王 初與王妃草創也”. 이 중에 무왕의 소명 서여(薯蕷)는 자료 ㉠ 원문의 소명 관련 내용과 본문의 다음 절에서 인용할 '무왕 조' 자료 ㉠에 서동이 신라 수도로 가 아이들에게 '서여'를 먹였다고 한 내용에도 보이는데, 착오로 인하여 '서동' 대신 쓴 듯하다.

17) “彌勒寺 在龍華山 世傳 武康王既得人心 立國馬韓 一日王與善花夫人 欲幸獅子寺 至山下大池邊 三彌勒出現池中 夫人謂王曰 願建伽藍於此地 王許之 詣知命法師 問墳地術師以神力一夜頽山墳地 乃創佛殿 又作三彌勒像 新羅眞平王遣百工助之 有石塔極大 高數丈 東方石塔之最” 『신증동국여지승람』 권33, 익산군 불우.

18) 무강왕이 '입국마한'하였다는 이 구절은 『삼국지』동이전 마한 조의 準왕이 위만에 쫓겨 '居韓地 自號韓王' 하였다는 기사와 연결되어, 마한 무강왕 곧 후조선 준왕 다시 후조선 무강왕이라는 조선시대에 널리 통용되는 인식을 낳게 되었다고 보인다.

19) “金馬郡 本馬韓國[後朝鮮王箕準避衛滿之亂 浮海而南至韓地開國號馬韓] …… 又有後朝鮮武康王及妃陵[俗號末通大王陵 一云百濟武王小名薯蕷]” 『고려사』 권57, 지리지2; “益山郡 本馬韓國[後朝鮮王箕準避衛滿之亂 浮海而南至韓地開國號馬韓] …… 後朝鮮武康王及妃雙陵[在郡西北五里許 俗呼武康王爲末通大王]” 『세종실록지리지』 전라도 전주부; “雙陵 在五金寺峯西數百步高麗史云 後朝鮮武康王及妃雙陵也 俗號末通大王陵 一云百濟武王小名薯蕷 末通卽薯蕷之轉” 『신증동국여지승람』 권33, 전라도 익산군 고직.

과 백제 무왕 묘라는 설이 전해졌던 것이다.

‘입국마한’은, 마한에 건국하였다고 볼 수도 있고 (옛) 마한(땅)에 수도를 세웠다고 볼 수도 있다. “무강왕이 이윅고 인심을 얻어 입국마한 하였다[武康王既得人心 立國馬韓]”란 구절 자체로만 보면 전자를 취하겠지만, 이 내용은 본장 제2절에서 제시할 혼인민담인 ‘무왕 조’ 자료 ㉠ 끝의 “서동이 이로써 인심을 얻어 왕위에 올랐다[薯童由此得人心 卽王位]”라는 내용과 직결된다. ㉡ 민담 구성으로도 ‘즉왕위는 자연스런 행복한 결말이기도 한 만큼 본래 이야기에도 있었을 것인데, 『동국여지승람』이나 그 저본의 찬자들이 ‘즉왕위(卽王位)’를 생략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미륵사는 백제 무왕이 세웠으니 본래 설화의 내용에서 ‘입국마한’은 ‘익산경영의 수도 건립을 말했다는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고본’에는 서동이 인심을 얻어 즉위하고 ‘입국마한’하였다고 하였을 것인데, 후대 서책의 찬자들이 사료를 취사 선택하며 사실 왜곡의 싹을 키웠다고 여겨진다. ‘입국마한’의 화소(話素)에 대하여는 다음 장에서 추가로 언급하겠다.

『관세음응험기』에 의하면 백제 무광왕이 지모필지로 천도하고 제석사를 세웠다고 하였다. 무광왕은 무왕으로 무강왕은 그 이표기이다.²¹⁾ 무광왕이 추진한 ‘천도’는 앞의 『동국여지승람』에 보이는 ‘입국마한’과도 부합한다. 옛 마한에 수도를 세우려한 백제왕은 물론 무왕이다.

20) 후조선은 『제왕운기』 하권 後朝鮮紀에서 처음 보인다. 유가 사가들이 기자에 대한 호감에서 칭찬 것이다. 따라서 후조선은 민간 설화에서 일찍부터 말해져 올 명칭이 아니므로 무강왕은 본래 마한 무강왕으로 전승되어 왔을 것이다. 여기에 보이는 조선 초의 세책은 관찬 서책들이라서 후조선을 의도적으로 사용했을 듯하다.

21) 황수영, 「백제제석사지의 연구」 『백제연구』 4 (충남대학교백제연구소, 1973), 13쪽; 노중국, 앞 책, 192쪽.

22) 나경수, 「서동설화와 백제 무왕의 미륵사」 『한국사학보』 36 (고려사학회, 2009), 413~414쪽. 이 설화에서 마한의 무강왕과 백제 무왕이 의도적으로 혼동되고 있다고 보았다. 백제 후기 마한 국가로의 정체성 변화 조짐에 대하여는 김기홍, 「백제의 정체성에 관한 일 연구」 『역사와 현실』 54 (한국역사연구회, 2004), 201~219쪽이 참고 된다.

마한계 주민 간에 마한 시조명이 전승되었을 가능성을 부인할 수 없다.²³⁾ 그런데 제시된 자료 ㉠은 마한 건국신화로 볼 만한 구성이 아니다. 천명을 받거나 마한의 정체성이 세워지는 것도 아니며 개국조로 어울릴 만한 고난 극복 과정이 펼쳐지지도 않았다. 이 자료를 근거로 무강왕을 마한 시조로 볼 수는 없다.

무왕이 금마저로 천도를 추진하였거나 또 하나의 수도를 경영하였다면,²³⁾ 마한계 주민들은 큰 감회를 가졌을 것이다. 들뜬 분위기 속에서 익산경영의 주도층이나 주민들에 의해 또 하나의 국호처럼 '마한'이란 명호가 운위되었을 개연성도 없지 않을 듯하다. 성왕 대의 사비천도 후 국호를 '남부여'로 한 점도 참고 된다. 무왕 즉 무광왕(무강왕)은 마한 고지인 이 지역에서는 마한 왕이라고 관념되거나 말해졌을 가능성도²⁴⁾ 생각해 볼 수 있다.

통일 후 신라는 일통삼한의 정책을 폈는데²⁵⁾ 통합을 통일로 승화시키기 위한 정치적 표방의 성격이 컸다. 이런 중에 역사적 연관성으로 볼 때 백제를 마한으로 보는 인식이 당연히 있었을 것이나 최치원은 백제를 변한으로 보기도 하였다.²⁶⁾ 이렇게 백제와 마한의 연결이 가변적일 만큼 삼한과 삼국의 연결에 인식 상 혼란이 있었던 상황 속에서, '고본'에 있었을 '입국마한'은 자칫 마한의 건국으로 해석될 소지를 가지고 있었던 셈이다.

결국 마한 무강왕과 백제 무왕은 동체이명이나, 문제의 '입국마한'으로 인하여 일연의 교감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다시 고조선의 준(準)왕이 결부되며 무강왕은 후조선 왕이자 마한 시조 왕으로 까지 인식되기에 이르렀다고 여겨진다.

23) 조경철, 「백제 무왕대 神都 건설과 마름사·제석사 창건」 『백제문화』 39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2008), 123쪽. 익산 경영이 神都 건설이라는 견해가 제시되었다.

24) 김영태, 「마름사 창건 연기설화고」 『마한·백제문화』 창간호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1975), 94쪽.

25) 신라 및 후삼국시대 삼한 인식과 관련하여서는 노태돈, 「삼한에 대한 인식의 변천」 『한국사연구』 38 (한국사연구회, 1982), 129~143쪽 참조.

2. 혼인 민담

저명한 서동과 선화공주의 결혼담이 이어진다.

㉔ 신라 진평왕의 셋째 공주 선화(善花)[혹은 善化라고도 쓴다]가 이름답기 짝이 없다는 말을 듣고 머리를 쥐고 서울에 와서 마를 가지고 동네 아이들을 먹이니 아이들이 친해서 따르게 되었다. 이에 동요를 지어 여러 아이들을 꺾어서 부르게 하였는데 그 노래에 '선화공주님은 남몰래 얼어두고 서동 방을 밤에 무엇을 안고 간다' 라 하였다. 동요가 서울에 퍼져 대궐에까지 알려지니 백관이 임금에게 극간하여 공주를 먼 곳으로 귀양 가게 하였는데 장차 떠나려 할 때 왕후가 순금 한 말을 노자로 주었다. 공주가 귀양처로 갈 때 서동이 도중에서 나와 맞이하며 시위하고 가고자 하였다. 공주는 그가 어디서 온지는 모르나 우연히 밧고 기빠하여 따라가며 잠통하였다. 그 후에야 서동의 이름을 알고 동요가 맞은 것을 알았다. 함께 백제로 와서 모후가 준 금을 내어 생계를 꺾하려 하니 서동이 대소하며 이것이 무엇이냐 하였다. 공주 가로되 이것은 황금이니 가히 백년의 부를 이룰 것이다. 서동이 가로되 내가 어려서부터 마를 파던 곳에 흙과 같이 쌓아 놓았다 하였다. 공주가 듣고 크게 놀라 가로되 그것은 천하의 귀한

26) 통일 후 신라 중대에 굳이 삼국과 삼한을 연결했다면 백제를 마한으로 보았을 가능성이 있다. 백제를 정복한 후 당이 구 백제 영토에 세우려던 5도독부 중에 익산지역에 설치하려했다고 보기도 하는 마한도독부가 있었음이 참고 된다(『동사강목』 권4 상, 경신년 9월조). 백제를 마한과 연결하는 인식이 존재했음은 금마산에서 백제가 일어났다고 한 견훤의 언사에서 도 엿볼 수 있다(『삼국사기』 권50, 견훤 열전). 한편 최치원은 고구려를 마한, 백제를 변한, 신라를 진한으로 보았다(『삼국사기』 권46, 최치원 열전). 이러한 인식은 『삼국사기』·『삼국유사』·『제왕운기』로 이어진다. 삼국과 삼한이 1:1 대비될 수 없으므로 삼한과 삼국을 연결함에는 혼란이 있었다. 『삼국유사』 권1, 변한 백제조에 의하면, '혹자'가 평양 근처 구룡산이 변나산 임을 들어 고구려를 변한이라고 한다면 오류라고 하였다. 삼한을 삼국과 연결하려다 보면 고구려를 변한으로 보는 경우도 있었던 것이다. 그 '혹자'는 진한이 신라라는 인식은 일반화되어 있었기에 백제를 마한으로 보았을 것이다.

보물이니 그대가 지금 그 소재를 알거든 그 보물을 가져다 부모님 궁전에 보내는 것이 어떠하냐고 하였다. 서동이 좋다 하여 금을 모아 구렁과 같이 쌓아 놓고 용화산 사자사의 지명법사에게 가서 금을 수송할 계획을 물었다. 법사가 가로되 내가 신통력으로써 보낼 터이니 금을 가져오라 하였다. 공주가 편지를 써서 금과 함께 사자사 앞에 갖다 놓으니 법사가 신통력으로 하룻밤 사이에 신라 궁중에 갖다 두었다. 진평왕이 그 신기한 변화를 기이히 여겨 더욱 존경하며 항상 편지를 보내어 안부를 물었다. 서동이 이로부터 인심을 얻어 왕위에 올랐다.²⁷⁾

재미있고 환상적인 이야기이다. 그런데 인물들의 성격에 혼란스런 면이 있다.²⁸⁾ 적극적이던 서동은 공주를 만난 후에는 수동적으로 바뀐다. 적국 수도에 가서 꾀로 공주를 쫓겨나게 한 세상살이를 잘 아는 자인가 하면 황금도 모르는 바보 같기도 하다. 반면 자신에게 가해진 술수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답답한 존재였던²⁹⁾ 선

27) 『聞新羅眞平王第三公主善花[一作善化]美艷無雙 剃髮來京師 以薯蕷餉閭里羣童 羣童親附之 乃作謠 誘羣童而唱之云 善化公主主隱 他密只嫁良置古 薯蕷房乙夜矣卯乙抱遺去如 童謠滿京 達於宮禁 百官極諫 竄流公主於遠方 將行 王后以純金一斗贈行 公主將至竄所 薯蕷出拜途中 將欲侍衛而行 公主雖不識其從來 偶爾信悅 因此隨行 潛通焉 然後知薯蕷名 乃信童謠之驗 同至百濟 出王后所贈金 將謀計活 薯蕷大笑曰 此何物也 主曰 此是黃金 可致百年之富 薯童曰 吾自小掘薯之地 委積如泥土 主聞大驚曰 此是天下至寶 君今知金之所在 則此寶輸送父母宮殿何如 薯童曰 可 於是 聚金積如丘陵 詣龍華山師子寺知命法師所 問輸金之計 師曰 吾以神力可輸 將金來矣 主作書 并金置於師子前 師以神力 一夜輸置新羅宮中 眞平王異其神變 尊敬尤甚 常馳書問安否 薯童由此得人心 卽王位』 『삼국유사』 권2, 기이, 무왕.

28) 김대숙, 앞 논문, 64쪽. 이 설화는 같은 유형의 설화에 비해 주인공의 역할이 약화되고 상대방 남자의 역할이 강화되었다고 하였다.

29) 황폐강, 『향가문학의 이론과 해석』 (일지사, 2001), 297쪽. 선화공주의 운명이 바뀌게 되는 결정적인 서동요 사건을 다름에 있어 주인공이 철저히 소외되고 있는 것은 설화로서 불완전한 점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화공주는 뒤에서는 의사 결정을 주도한다.³⁰⁾

당연히 설화의 변형이 밀해졌다. 백제 부흥운동을 제어하기 위해 또한 유화정책의 일환으로 신라 정부가 변형을 하여 유포하였다고도 한다.³¹⁾ 그런데 서동이 신라로 가고 금을 진평왕에게 보내서 인정을 받아 왕위에 오른다는 등 친신라적이라 할 만한 화소가 눈에 띄나, 신라왕과 백관이 그에게 속고 신라 공주도 그와 잠통한다는 화소도 있어서 신라 측의 의도적 변개를 거친 것으로 보기에 문제가 있다. 황금을 보냄도 혼인 폐백으로서 국부의 과시가 될 수 있으며, 진평왕이 더욱 존경하여 문안했다는 구절도³²⁾ 백제 측이 자랑스럽게 여길만한 내용이다.

그런데, 이 민담에 전하는 향가 '서동요'³³⁾를 보면 선화공주가 남편감을 두고 있었던 것처럼 되어있다. 그녀가 결혼한 후 보이는 주도적이고 면밀한 행태는 갑자기 나올 품성이 아닌 이상, 그녀는 주관이 뚜렷하여 남편감 선택에 갈등이 있었음을 이 노래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거의 인접한 시기에 평강공주(은달) 설화가 유포되었다. 두 민담은 '내복에 산다'계 설화[이하 '내복 계 설화로 약칭함]의 대표적 이야기들로 여겨지고 있다.³⁴⁾ 자

30) 정운채, 「선화공주를 중심으로 본 무왕설화의 특성과 서동요 출현의 계기」 『건국어문학』 19·20합집 (건국대학교 국어국문학연구소, 1995), 343~348쪽. 이 설화의 전개를 잠자는 선화공주의 의식 깨우기로 본다.

31) 강민식, 「서동설화의 생성과 전개」 『先史와 古代』 19 (한국고대학회, 2003), 374쪽.

32) 이 구절은 언뜻 신통한 일을 행한 지명법사를 존경하여 그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무왕 조'의 저본이 구전 설화를 축약 문자화한 것이라서 불분명한 문맥에 있을 수 있으며, 민담 구성상 공주와 야합한 서동을 진평왕이 시위로 인정하고 존경하게 되었음을 말하는 것이다. 백제 인물로서는 능히 말할 수 있는 내용이다.

33) 서동요는 신라 서라벌의 아이들이 부른 것으로 되어 있으나, 백제의 이야기꾼들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이들 목소리로 노래하였을 개연성이 있다.

34) 여러 연구자들이 이 유형의 화소를 정리하였는데 대동소이하다. 김석배, 「내복에 산다'형 민담 연구」 『문학과 언어』 3 (문학과 언어학회, 1982), 107쪽에 의하면, I 삶의 양식 차이에 기인한 부녀갈등, II 부녀가 헤어짐, III 가난하게 됨, IV 외외의 장소에서 금덩이 발견, V 부유하게 됨, VI 부녀가 만남, VII 삶의 양식 차이에 기인한 부녀갈등 해소로 보았다.

료 ㉠이 의거한 변형 전 본래의 민담에는³⁵⁾ 선화공주도 자신이 선택한 혼인을 고집하며 평강공주처럼 부왕과 갈등하여 쫓겨나는 주인공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 흔적이 강력한 독자적 완결성을 가져 변형되지 않은 서동요에 그대로 나타나 있는 것이다. 주관이 강한 선화공주가 주인공이었던 본래 민담이 모종의 필요에 의해 서동이 주인공인 것처럼 바뀌며 본래 이야기 구조가 변형되어 주인공의 성격이 혼란스럽게 되었던 것이다.

서동은 '서동요'에도 보이고, 또한 그가 마를 캐는 일을 하다가 황금을 얻었다고 한 것을 보면 본래부터 민담에 등장하여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내복 계 설화'에서는 쫓겨난 여인이 숲장이나 마통이(서동) 등과 만나 혼인하는데,³⁶⁾ 그는 본래 민담에서 공주의 빈천한 남편이었던 것이다. 공주가 셋째 딸임도 이 유형 설화에 보이는 한 정형이다. 본래 민담은 실로 어느 나라의 '선화공주 이야기'인 것이다.³⁷⁾ 사람들은 당찬 공주에 의해 결국 현실적으로 있기 어려운 천한 신분의 부마가 왕이 됨에 이르러 신분사회의 질곡을 깨는 대리만족을 느끼며 공감하기도 하였을 것이다.

왜 6,7세기에 부왕과 갈등하는 공주 이야기가 삼국에 화자된 것일까. 평민의 딸이 의미 있는 존재로 나서기에는 너무 이른 시대이니 왕실의 여인들을 통해 변화의 갈망을 표출한 듯하다. 건국 이래 너무 오랜 국가운영에서 구조 내 모순이 심화되고 활력을 잃어가면서 기존 권위에 대한 회의가 싹트던 것이다. 왕권의 약화와 귀족의 도전이 있던 중에 신라에서는 덕만 공주의 즉위 가능성이 문제되기도 하였다. 마침 5세기 말(472)에 북위에서 번역된 『잡보장경』이³⁸⁾ 남북조에서 삼국에 전해진 많은 불경들과 함께 전래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이 불경에 전하는 불교 예화

35) 최운식, 「쫓겨난 여인 발복설화고」 『한국민속학』 6 (한국민속학회, 1973), 68쪽에서 무왕설화는 무왕을 성화시키기 위해 기존의 구전설화인 '쫓겨난 여인 발복설화'를 차용하여 거기에 다른 이야기를 삽입하고 불교적 요소를 첨가 윤색하였다고 하였다. 현승환, 앞 논문, 153쪽에서도 무왕 조의 혼인설화는 '내복 계 설화'가 무왕에 수용되어 이루어졌다고 보았다.

36) 현승환, 앞 논문, 188~189쪽.

37) 본래 민담의 선화공주는 '신라' 공주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에 유의할 일이다.

인 자기 업(業)으로 자신의 행복이 결정된다는 확신으로 부왕과 맞서다 쫓겨나는 선광(善光)공주 이야기도³⁹⁾ 자아 각성에 촉진제가 되었을 듯도 하다.⁴⁰⁾ 선광공주

38) 번귀남, 「《雜寶藏經》의 本生故事 小考」 『중국어문학』 47 (영남중국어문학회, 2006), 255 쪽. 北魏의 沙門統 曇曜에 의해 복위불교 증흥을 위한 목적으로 『잡보장경』의 역경이 추진되었다. 불교본연의 내용에 왕조에 대한 충성을 강조하는 통속적 이야기를 위주로 하여 중국서사문학과 불교벽화미술, 일상 의식 등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고 한다.

39) “옛날 바사닉왕에게 선광(善光)이라는 딸이 있었다. 그는 총명하고 단정하여 부모들은 사랑하고 온 궁중에서 모두 존경하였다. 그 아버지는 딸에게 말하였다. ‘너는 내 힘으로 말미암아 온 궁중이 모두 사랑하고 존경한다.’ 딸은 대답하였다. ‘저에게 업의 힘이 있기 때문이요, 아버지의 힘이 아닙니다.’

이렇게 세 번 말하였으나 딸의 대답은 여전하였다. 아버지는 화를 내어 ‘과연 너에게 업의 힘이 있는가 없는가를 시험해 보리라.’ 하고, 좌우에 명령하였다. ‘…… 왕은 곧 그 딸 선광을 거지에게 아내로 주면서 딸에게 말하였다. ‘만일 너에게만 업의 힘이 있고 내 힘은 없다면, 지금부터 앞의 일을 징험해 알 것이다.’ 그러나 딸은 여전히 ‘저에게 업의 힘이 있습니다.’ 하고, 그 거지를 데리고 집을 떠났다.

그는 그 남편에게 물었다. ‘당신에게 부모님이 계십니까?’ 거지는 대답하였다. ‘우리 아버지는 전에 이 왕사성 안에서 첫째가는 장자였었는데,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시고, 의지할 곳이 없기 때문에 나는 거지가 되었소.’ 선광은 다시 물었다. ‘당신은 지금 옛날의 그 집터를 알 수 있겠습니까?’ ‘그 터는 알지만 지금은 집도 담도 다 허물어지고 빈 땅만 남아 있습니다.’ 선광이 남편을 데리고 옛 집터로 가서 돌아다녀자 가는 곳마다 땅이 저절로 꺼지고, 땅 속에 묻혔던 보물 광이 스스로 나타났다. ‘…… 그 때 왕은 문득 생각이 났다. ‘내 딸은 어떻게 생활하고 있을까?’ 어떤 사람이 대답하였다. ‘궁실과 재물이 왕보다 못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왕이 말하였다. ‘부처님 말씀은 진실이다. 자기가 선악을 짓고 자기가 그 값을 받는 것이다.’

딸은 그 날로 남편을 보내어 왕을 청하였다. 왕이 청을 받고 딸집에 가보니, 털자리와 담요와 집의 장엄이 왕궁보다 더 훌륭하였다. 왕은 그것을 보고 처음 보는 일이라 찬탄하면서, 그 딸의 말이 옳은 줄 알고 이렇게 말하였다. ‘자기가 업을 짓고 스스로 그 값을 받는 것이다.’

왕은 부처님께 가서 여쭙었다. ‘이 딸은 전생에 무슨 복업을 지었기 때문에 왕가에 태어나 몸에 광명이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다. ‘과거 91집 전에 비파시(毘婆尸)라는 부처님이 계셨고, 그 때 반두(盤頭)라는 왕이 있었으며, 그 왕에게는 첫째 부인이 있었다. ‘…… 왕이여, 그 때 왕의 첫째 부인이 바로 지금의 저 선광이요, 그가 가섭부처님 때에 가섭여래와 네 큰 성문에게 맛있는 음식으로 공양하였을 때 남편이 그것을 만류하자 그녀는 남편에게 청하였소. ‘…… 왕이여, 그 때의 그 남편이 바로 오늘의 저 남편이고, 그 아내는 오늘의 저 아내요. ‘…… 이와 같이 선악의 업이 따라 다니는 것은 일찍 어긋나는 일이 없었소.’

이야기는 생소하고 공허할 전생의 업, 인연 등 불교 교리를 떨어내며 민담에 수렴되는 과정을 겪었을 것이다. 이 과정 속에서 불교적 요소의 탈락은 물론 구성상의 재편까지 요구되었다고 한다.⁴¹⁾ ‘총명하고 단정한’ 선광공주는 고상하고 도도하여 접근하기 어려운 정이 덜 가는 인물이다. 이야기꾼들에 의해, 자형(字形)이 유사하면서도 민중 정서에 보다 친숙하게 느껴질 만한 ‘착하고 아름다운’ 선화(善花)공주로 전진했을 개연성도 있어 보인다.⁴²⁾ 선광공주 이야기가 평강공주와 선화공주 두 이야기에 영향을 주었을 만한 요소로 주목되는 것의 하나는, 부왕과 공주 간 대립 구도이다. 후대의 민담들처럼 백성이 주인공인 설화로까지 발전하기에는 세월이 더 필요했던 듯하다. 삼국의 불교는 왕실 중심의 신앙을 극복하지 못한 점도 있기에, 이들 민담은 궁궐 안 부녀간 대립 구도에 머물고 있었을 개연성이 있기도 하다.

다시 자료 ㉠을 보면, 용화산 사자사의 지명법사가 주목된다.⁴³⁾ 사자사는 위치나 규모 등으로 보아 백제 내에 영향력이 큰 저명한 대사찰은 아닐 것이다. 여기

왕은 부처님 말씀들을 듣고 행업을 깊이 통달하여 스스로 잘난 체하지 않고, 깊이 믿고 깨달아 기뻐하면서 떠났다.” 『잡보장경』 제2권, 바사니왕의 딸 선광(善光)의 인연(동국역경원, 한글대장경 e-book).

40) 정운채, 앞 논문, 338쪽. ‘내복 계 설화인 ‘삼공본풀이’의 주인공 감은장애기와 선광공주의 자각적 모습이 일치한다고 보았다.

41) 황인덕, 앞 논문, 117쪽 및 119쪽. ‘내복에 산다’ 형 민담이 『잡보장경』의 선광공주 설화로부터 유래한 것으로 본다. 불전설화가 민중에 구전되며 어려운 전생 담 부분이 탈락되고 동시에 불교적 주제가 확인되는 마지막 부분도 생략된 뒤, 구성인물사전 등 여러 면에서 민담적 보편성과 한국적 특성에 맞게 동화되어간 결과라고 보고 있다. 보다 종합적인 분석은 황인덕, 『佛典系 韓國民談 研究』(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8), 61~78쪽 및 155~166쪽 참조.

42) 선화공주를 미륵선화로 보는 연구자들이 적지 않다. 전체 설화가 미륵사 창건 연기설화로 이해할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그런데 민담인 자료 ㉠을 주목해 볼 때 그렇게 볼 수 없다. 미륵선화는 미륵불과 연관된 거룩하고 신비한 종교적 존재이고 선화공주는 세속 인간들의 최고 선망 대상인 국왕의 딸이다. 이 민담에서 추구하는 혼인 재물 명예 등은 불교 유입 훨씬 이전에서부터 평범한 인간들이 소중하게 여겨온 복의 내용들이며, 7세기에 미륵이 백제 민담의 여성 주인공으로 화할 만큼 민중적이고 친숙한 존재였을지도 의문이다.

서 이 설화의 형성 및 향유 주체가 지방의 절인 이사자사를 잘 아는 금마저 일대 주민들임을 알 수 있고, 아울러 이 설화가 거대한 미륵사가 완성되지 않은 시점에 형성되었을 개연성이 높은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지명법사는 역할이 구체적인 듯 묘사되었으나 실제 인물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상징과 은유를 기법으로 하는 설화에서 더구나 후대에 형성된 전설도 아닌 이 민담에서, 실재하는 백제 내의 개인을 거명하여 등장시킬 가능성은 낮을 듯하다. 신라 진평왕은 부담 없는 타국 왕이기에 실명으로 등장시켰지만 백제왕은 서동이라 하여 실명이 아님도 상기할 일이다. '지명'이 한 일은 허구(虛構)인데, 황금 이송과정을 매우 자세하게 묘사한 것은 이야기의 현실감을 높이기 위해 가한 분석의 결과로 보인다.

3. 미륵사 창건 전설

미륵사를 두고 말해지던 창건 전설이 이어진다.

- ㉔ 하루는 왕이 부인과 함께 사자사에 가다가 용화산 아래의 큰 못가에 이르자 못 가운데서 미륵삼존(彌勒三尊)이 나타나므로 수레를 멈추고 경례하였다. 부인이 왕에게 이르되 나의 소원이 이곳에 큰 절을 이룩하면 좋겠다고 하였다. 왕이 허락하고 지명에게 가서 못을 메울 것을 물었더니, 신력으로 하루밤에 산을 무너트려 못을 메워 평지를 만들어서 미륵삼상과 회전(會殿)·탑(塔)·낭무(廊廡)를 각각 세 곳에 세우고 액호를 미륵사[국사(國史)에는 왕흥사라 하였더라 하였다. 진평왕이 백공을 보내서 도와주었다.⁴⁴⁾

43) 노중국, 「백제 무왕과 지명법사」 『한국사연구』 107 (한국사연구회, 1999), 28쪽. 지명은 무왕의 신임을 받아 불교계를 장악했던 미륵신앙을 추구한 백제 승려로 보고 있다. 이 설화 자료 이외에 다른 근거는 없는 편이다. 신종원, 앞 논문, 34쪽에서도 미륵사와 같은 대사찰 불사를 책임지고 진두지휘한 승려 지명에게 항간의 이야기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황룡사의 경우 등을 보면, 국가가 주도한 대사찰의 건설에 승려 개인의 역할이 설화화하는 경우가 일반적일지는 더 검토해 볼 일로 여겨진다.

황당한 이야기가 중심을 이루지만 앞 민담과 달리 미륵사 창건이라는 구체적인 사실이 투영된 전설이다. 미륵사가 완공되고 망국 후에 세월이 경과하며 형성되었을 것으로 보인다.⁴⁵⁾ 본래 전설은 왕과 왕비의 행차, 미륵삼존 지중 출현, 왕비의 발원 과 왕의 허락, 절터 마련, 미륵사 건축 양상과 편액 관련 내용으로 구성되었을 듯하다. 그리고 앞 민담에서처럼 인물을 상징적으로 말하지 않고 이제 옛 백제왕은 무왕(무강왕)이라고 실명으로 말했을 것이다.

미륵사 창건을 발원한 왕비는 현재로는 미륵사지석탑 사리봉안기에 보이는 사택덕의 딸인 무왕의 왕후라고 여겨진다.⁴⁶⁾ 제시된 자료 ㉠과 ㉡이 합쳐지며 선화공주가 전설 속 왕비인 것처럼 되었지만, 역사성과 무관한 민담인 ㉢의 선화공주는 후대에 생성된 보다 사실에 근거한 별도의 전설 ㉣의 무왕 왕비와 직결될 수는 없다고 보인다.⁴⁷⁾

지명(知命)이 미륵사 터를 매우는 데 다시 등장하였다. 미륵사지가 못이었던 것

44) “一日王與夫人 欲幸師子寺 至龍華山下大池邊 彌勒三尊出現池中 留駕致敬 夫人謂王曰 須創大伽藍於此地 固所願也 王許之 詣知命所 問填池事 以神力一夜 額山填池爲平地 乃法像彌勒三會殿塔廊廡各三所創之 額曰彌勒寺[國史云王興寺] 眞平王遣百工助之” 『삼국유사』 권2, 기이, 무왕.

45) 전설 형성에 상당한 세월 경과가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기도 한다. 그런데 망국과 같은 대단절의 역사는 그 기간을 크게 단축시키는 계기가 되었을 개연성이 있다고 여겨진다. 망국 후 금마저일대 주민들로서는 수십년전의 미륵사 창건이 이득한 옛일로 여겨질 만한 분위기가 있었을 듯도 하다.

46) 김상현, 「미륵사 서탑 사리봉안기의 기초적 검토」 『대발견사리장엄 미륵사의 재조명』 (마한 백제문화연구원·백제학회, 2009), 148쪽; 김주성, 「백제 무왕의 정국 운영」 같은 책, 48쪽에는 미륵사 창건을 발원한 사택씨 왕후가 무왕과 처음 결혼한 왕비이며 의자왕의 모후라고 보았다. 한편 이도하, 「미륵사지 서탑 사리봉안기의 분석」 『백산학보』 83 (백산학회, 2009), 252~259쪽에서는, 사리봉안기에 왕세자에 대한 언급이 없음을 의미 있게 보고 무왕 초의 왕비는 설화에 보이는 선화공주 즉 의자왕의 모친으로 보며, 사택씨 왕비는 선화왕비 사망 후 왕비가 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47) 『신증동국여지승람』 권33, 익산군 불우 彌勒寺 조에는 왕비의 이름 善花夫人이 나오나 그것은 전승과정에서 앞 민담의 선화공주를 옮겨 칭한 것으로 보인다.

은 발굴로 밝혀졌으나 지명의 신통력은 사실성과 거리가 멀다. 자료 ㉔에서도 그는 ‘하룻밤[一夜]에 황금을 신라 궁궐로 날랐다 하였는데 여기서도 ‘하룻밤[一夜]에 못을 다 메웠다고 하였다. 이야기꾼들이 그의 신통력을 끌어다 상투적으로 말한 듯하다.

“진평왕이 백공을 보내 도왔다”라는 내용은 사족처럼 보여 누군가에 의해 추가된 듯도 하다.⁴⁸⁾ 비중 있는 내용인 만큼 사실이었던 그에 관한 화소가 부연될 만도 한데 사무적으로 처리된 감이 있다.

Ⅲ. ‘무왕 조’ 설화의 변형 과정

1. 민담의 변형과 탄생 신화의 결합

‘무왕 조’ 설화는 본래 3개의 이야기로 구성에 변형이 있었음을 보았다. 그런데 설화를 하나로 만든 작업은 단순 결합이 아니고 구조에 변형을 가한 준 창작 수준의 힘든 것이어서 노승 일연(一然)의 소위로 보이지는 않는다.

신라 일반인들이 자신들과 무관한 백제 무왕에 관한 설화를 생성하거나 더구나 변형까지 하며 전승했을 이치는 없다.

통일 후 신라(정부)의 정치적 의도에 의한 윤색이 말해지기도 하며,⁴⁹⁾ 과거 익산 세력들이 추구했던 친신라 우호정책이 진평왕대에 받아들여졌음을 추가로 신라측이 첨부한 것으로 보기도 한다.⁵⁰⁾ 그런데 ‘내복 계’ 민담은 주관이 강한 막내(혹은

48) 박현숙, 「백제 무왕의 익산경영과 미륵사」 『한국사학보』 36 (고려사학회, 2009), 345쪽.

49) 강민식, 앞 논문, 383쪽.

50) 김수태, 「백제 무왕대의 대 신라 관계」 『대발견사리장엄 미륵사의 재조명』 (마한백제문화연구소·백제학회 2009), 79쪽. 51) 신라의 통치에 협력하며 후시 사관 등 관리로 나아간 이를 전 형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딸의 성공담이다. 서동은 본래 민담에서도 장인에게 황금을 보내 인정받고 왕위에 오르는 설정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친신라적으로 보일 수도 있는 내용들은 본래부터 있었던 화소일 가능성이 높다. 신라 측의 의도적 윤색이 있었다면 진평왕이 속아 넘어가고 선화공주가 잠통하는 화소가 남기도 어려울 것이다.

통일 후 신라의 어느 편집자가 이야기들을 문헌적으로 정리했을 가능성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인물의 성격을 바꾸고 구조를 변형시키는 준 창작적 행위까지 했을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 그 정도의 윤색이 있었다면 역시 신라로서 거북한 화소들을 그대로 두지 않았을 것이다.

백제인 혹은 통일 후 백제계 인에 의해 민담의 변형과 세 이야기의 통합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다. 변형의 주체가 ‘신라를 의식하는’ 통일 후 백제계 인이라면⁵¹⁾ 역시 신라로서 거북한 화소들을 피했을 듯하다. 미륵사 사중들이 절을 보존하기 위해 진평왕과의 연계 등을 내세운 것으로 보기도 한다.⁵²⁾ 그런데 불교 국가인 신라가 미륵사와 같은 대사찰을 폐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며, 현전하는 설화 내용은 친신라적이라고만 볼 수 없음을 거듭 환기한다.

삼국시대 말 백제인들에 의해서 ‘내복 계’ 민담이 제시된 자료 ㉠과 같이 신라 진평왕과 그의 딸이 나오는 이야기로 변형되었을 듯하다. 사실성이 투영된 평강공주 이야기가 말해지고 있었음도 참고 된다. 이야기는 현실감을 가질 때 흥미와 감동이 커진다. 백제인들은 민담을 재미있게 하기 위하여⁵³⁾ 막연한 어느 왕과 그의 (셋째) 딸 선화공주라는 설정을 벗어버렸다고 보인다. 백제 공주로 말하기는 자칫 현실 담론이 될 수도 있기에 피했을 것이다. 후술하겠지만 그러한 구성은 그들의 소망과 거리가 있다. 가깝고도 먼 이웃 그래서 관심은 크면서도 부담은 적은 신라의 왕과

52) 김동욱, 『국문학 개설』 (민중서관, 1961), 34쪽; 황폐강, 앞 책, 290쪽 재인용. 그런데 신문왕은 백제계 승려 경흥을 국로로 하였고, 금산사 출신 고승 진표도 경덕왕의 적극적인 선무 대상이기도 할 만큼 구 백제지역 불교는 대접을 받는 면이 있었다.

53) 김석배, 앞 논문, 99쪽. 민담은 이야기 자체의 흥미와 민담적 가능성 때문에 전승된다고 한다.

공주로 설정되어졌던 듯하다.⁵⁴⁾ 백제인들은 잘 알고 있는 당시의 신라왕을 대입했을 것이다. 다른 왕을 물색하거나 상징적으로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이에 실제 하던 '진평왕'이 등장하게 되고⁵⁵⁾ 사실과는 무관하게 그의 셋째 딸 이야기처럼 전화 될 처지에 이르렀던 듯하다. 백제로는 위덕왕 말 이래 무왕 대인데, 설화로 보면 무왕 대에 해당한다.

신라 진평왕과 그의 딸인 공주를 민담에 설정하면 인물 구성에 문제가 생긴다. 진평왕은 신라왕이니 서동은 다른 나라 왕이 된다고 해야 할 입장이 된다. 고구려 왕이라고 하면 미미한 타국 이야기가 될 것이다. 현실이라면 말할 수 없고, 지배층 이라면 말하기에 더욱 주저될 터인데, 비교적 자유로운 상상을 할 수 있는 백제 민중들로서는 서동이 백제의 왕이 되었다고 하였던 것이다.⁵⁶⁾ 이렇게 되자 마치 당시의 백제왕이 신라왕의 사위인 것처럼 되어 이야기의 현실감과 긴장감이 한층 높아졌을 것이다.

백제왕이 등장하게 되자 자국 왕에 대한 관심 고조와 또한 존경심에 의해 이야기는 백제왕 서동을 주인공으로 한 구성으로 변하게 된 듯하다. 무왕 탄생 신화를 가져와 '서동'을 아명처럼 첨가하였다. 자료 ㉠에서 서동은 '국인이 말한 것으로' '항상 마를 캐어 팔아서 생활하였으므로' 붙여졌다고 하였다. 가족이 붙인 것도 아니고, 소년 이상의 생업과 연관하여 붙여질 만한 의미로 아명 명명의 연유를 말했으니

54) 김대숙, 앞 논문, 67쪽. 서동은 마한계 집단을 선회는 뒤에 들어온 은조세력 집단을 대표하는 것으로 본다. 백제 후기에 공주를 과거 동성왕대에 혼인동맹을 맺은 신라 출신으로 바꿔 말한 것으로 보기도 하였다.

55) 진평왕은 시호가 아니라 생시의 명호이다. 다음 자료가 참고 된다. “貞觀元年 太宗賜其王 璽書曰 王世爲君長 撫有東蕃 …… 新羅王金眞平 朕之藩臣 王之鄰國 每聞遺師” 『구당서』 권199 상, 동이열전, 백제.

56) 백제 민중들은 이 '혼인 민담' 내에서는 백제 무왕을 '서동'으로 은유적으로 말했다. 설화 표현의 특성이자 묘미이기도 한데, 당대 자국 왕을 명시하였다가 후시 문제가 될 것을 피한 셈이기도 하다. 물론 마루사 창건전설의 경우는 다를 것이다.

본래의 이명이 아닐 가능성을 보여준다.⁵⁷⁾

그런데 이러한 인물 설정은 흥미 유발이나 구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당대인들의 집단적 열망의 반영이기도 하다. 백제 민중들은 수십년간의 전쟁에서 목숨과 재물을 바쳐왔다. 전쟁의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평화를 원했을 것이다. 나·제 간의 적대적 상황이 심화될수록 평화를 더욱 갈망하였을 것이다.⁵⁸⁾ 그래서 양국 왕실 간 결혼이라는 마치 현실적 외교정책으로 보이는 허구까지 설정하였던 것이다. 이 설화(㉠㉡)는 당대의 대표적 인물인 신라와 백제의 국왕을 실물과 상징 인물로 등장 시킴으로써, 사료가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 역사적 사실과의 혼동을 일으킬 소지를 갖게 되었다. 사실성을 두고 연구자들 간 이견이 있게 된 소이의 한 근원이 여기에 있다고 여겨진다.

본래 민담이나 나·제 왕실 간의 혼인 이야기처럼 재구성되는 데는, 당시 나·제 왕실 간의 혼인이 상상해질 만한 현실 배경도 있었다. 진평왕에게는 딸만 있었는데 특히 장녀 덕만공주는 결혼 관계가 순탄치 않았다. 성골인 그녀는 남편 물색에 어려움을 겪었을 듯하다. 혼인 후 남편은 일찍 사거한 듯 사서에 미심쩍은 갈문왕 호⁵⁹⁾ 이외에 구체적 행적이 보이지 않아 거의 독신으로 보냈을 개연성이 높다. 그녀는 ‘심

57) 이와 유사한 경우는, 같은 ‘내복 계’ 설화인 평강공주(온달) 설화의 초두에 수동적 남편 온달을 설명하는 화소를 넣어 이야기 구성을 온달이 주인공인 것처럼 변화를 준 것에도 볼 수 있다.

58) 이 설화가 말하고자 하는 바에 대해 여러 견해가 있다. 무왕을 성화시키기 위해서라거나(최운식, 앞 논문(1971), 79쪽), 미륵사 창건 연기담이라고 보기도 한다(김영태, 앞 논문, 91쪽). 신라 정부가 백제부흥운동을 억압하기 위해서 혹은 화유할 목적으로 변형 유포했다는 견해도 있다. 한편, ‘내복 계’ 설화의 서사가 제 길을 찾아간 열린 딸에 의한 딸인 아버지의 구원을 말하고 있다는 견해가 있다(신동훈, 「구비문학에 나타난 부녀관계의 원형 ‘집 나가는 딸’ 유형의 설화를 중심으로」 『구비문학연구』 30 (2009), 125쪽). 이 견해를 원용하여 생각해 보면 현전하는 이 ‘사동왕 민담(㉠㉡)’은 딸에 의한 아버지 구원이 확장되어 나·제 적대국간 평화 구현을 통한 백성 구원을 소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듯하다.

59) “聖骨男盡 故女王立 王之匹飲葛文王” 『삼국유사』 왕력, 신라 제27대 선덕여왕.

화요탑의 비화를 남긴⁶⁰⁾ 절세의 미인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두 왕실 간 혼인을 통한 평화를 상상하던 백제인들에게 추진력을 더해 주는 배경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관련된 후대 자료들을 보면 서동을 '마한 왕'으로 설정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점도 있다. 그런데 자료 ㉠을 보면 서동은 '백제'로 돌아온 후 왕이 되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무강왕은 무광왕의 이표기로 백제 무왕인데 민담에서 당대 자국 왕의 이름을 직접 거명하지 않았을 것은 이미 언급하였다. 앞에서 검토한 '무강왕'도 혼인민담이 아니고 오히려 망국 후에 형성된 미륵사 창건 전설에서 등장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설화의 주요 인물의 하나인 지명법사도 자료 ㉡과 ㉢이 합쳐져 구성 변화가 오며 나타나게 되었을 것이다. 본래 민담에도 도승이 도술로 황금을 공주와 대립관계였던 부왕에게 전했을 듯하다. 그런데 이제 백제 서동왕이 장인인 신라 진평왕에게 황금을 보내는 일은 나제간 국경을 넘는 범상치 않은 일이 되었다. 신라로의 진출로에 있는 금마저 일대가 의식되고, 도승의 역할을 위해 미륵사가 아직 창건되지 않은 듯 사자사의 스님을 등장시킨 듯하다. 용화산 사자사의 출현은 이 설화의 향유자들이 금마저 일대 주민임을 보여준은 이미 언급한 바 있다. 금마저 일대는 대 신라 군사작전상의 최대요충지라서,⁶¹⁾ 주민들은 신라에 관한 풍문에 비교적 밝고 전쟁의 고초를 늘 실감하였을 것이다. 이에 신라 진평왕을 민담에 설정하고 강렬한 평화 추구의 이야기를 형성 운위하였던 것이다. 그들은 적대적인 두 왕실을 혼인하게 하여 불가능한 평화를 이루기 위하여 '천명을 이는[知命]' 자의 활약이 필요함을 알고 그 뜻을 이름으로 형상화하여 등장시킨 듯하다. 이런 점에서도 '지명'은 실제 인물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⁶²⁾

60) 『大東韻府羣玉』 권20, 心火繞塔.

61) 유원재, 「백제사에서 익산문화유적의 성격」 『마한백제문화』 14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1999), 118~119쪽

62) 『삼국사기』 권4, 신라본기, 진평왕 24년 조에는 진평왕이 후대한 신라 유학승 대덕 智明이 있어서 같은 인물이 아닐까 추정하기도 하나 관련이 없다고 보인다.

2. 서동왕 민담과 미륵사 창건 전설의 결합

자료 ㉠과 ㉡이 결합하여⁶³⁾ 금마저 일대에 유포되어있던 중에, 망국 후 미륵사 창건 전설이 발생하였던 것이다. 두 이야기의 주인공이 무왕이라고 할 수도 있으니 이야기들이 민간에서 자연스럽게 합쳐졌을 가능성도 있다. 그런데 자료 ㉠과 ㉡은 민담과 전설로서 각기 완결성이 있으며 성격이 다르고, 연결 관계도 순하지 않은 면이 있다.⁶⁴⁾ 다소 의도적으로 결합시킨 감이 있다.

자료 ㉡에서 활약한 지명법사는 ㉢에서 존재감이 크게 약화된 괴동적 존재로 등장한다. ㉡에 있는 그를 ㉢에 끌어들여 이야기들을 하나로 결합했을 가능성이 보인다. 과거 인연으로 국왕 내외가 사자사를 방문한 것처럼 하고, 지명으로 하여금 역시 '하룻밤'에 못을 매워 미륵사터를 마련한 것처럼 말하여 연결시킨 듯하다. ㉢에서 지명법사의 역할은 도승의 활약 범주에 머물고 있는데 그의 실재성에 무게를 둘 수 없다. 앞 민담에서 평화실현을 위해 필요했던 이름 '천명을 앎[知命]'은 미륵 세계의 구현으로 여겨질 미륵사 창건에도 어울릴만한 이름이기도 하다.

이 두 이야기의 연결 흔적은 앞서 본 『동국여지승람』 익산군 미륵사조의 창건 전설에서도 엿볼 수 있다. 그 설화의 구성은 '무왕 조의 자료 ㉢과 기본적으로 동일한 데⁶⁵⁾ 무강왕이 인심을 얻어 '마한에 수도(혹은 나라)를 세웠다[立國馬韓]'라는⁶⁶⁾ 비중 있는 화소가 더 보인다. 자료 ㉢의 혼인 민담은 서동이 인심을 얻어 즉위함으로[卽王位] 완결된다. 이 민담에 미륵사 창건 전설을 연결하기 위해서 '(옛) 마한 땅

63) 자료 ㉠+㉡은 '서동왕 민담' 혹은 '서동설화'라고 칭함이 적당할 듯하다.

64) 황폐강, 앞 책, 295쪽. 서동설화와 미륵사 연기설화가 부자연스럽게 접합되어 있는 것이 '무왕 조라 보았다.

65) 일연이 체제를 세워 정리하면서 구성상 명기할 필요가 없었던 무강왕이나 선화부인 등의 이름은 자료 ㉢에서 생략했다고 보인다. 일연이 본 '고본'과 『동국여지승람』 익산군 불우 미륵사조의 저본이 된 자료는 零碎的한 고대사 사료의 형편으로 보아 거의 같은 것이 아닐까 한다. 한편 미륵사 관련 『동국여지승람』의 기록을 볼 때 승려의 저작인 『삼국유사』의 내용이 조선 초기 관리들의 승유역불의 지성풍토에서 배제된 감도 있다.

에 수도를 건립하였더라는, 전승 결합의 주체들이 알고 있는 미륵사 창건의 전제가 될 역사 과정을 넣어 말했던 것으로 보인다. 일연이 본 '고본'은 대체로 위와 같은 설화 구성을 전하였다고 여겨진다. 그런데 일연은 미륵사와 왕흥사를 혼동하고 '익산경영'에 대해 모른다. 이에 자칫 백제 무왕(무강왕)을 '마한' 왕처럼 볼 수도 있게 할 '입국마한'의 구절은 산삭(刪削) 대상이 되었던 것이다. 그는 최치원의 견해대로 백제를 변한으로 보았음도 상기해야 할 것이다. 『동국여지승람』이나 혹은 그 저본이 된 서책이 편찬되는 단계에서는 오히려 '고본'의 '즉왕위'를 생략하고 '입국마한'만을 남겨 무강왕이 마한을 세운 시조처럼 보이게 되었던 듯하다.

제시된 '무왕 조'의 자료 ㉠과 ㉡을 적극적으로 연결해 말할만한 이들은 통일 후 신라 치하의 금마저 일대 주민들일 것이다. 망국에 따른 종전으로 백제 말에 나제간의 전쟁 종식과 평화를 꿈꾸었던 서동왕 혼인 민담은 추진력을 잃어 사멸될 처지였으며, 미륵사 전설만이 전해질 형편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이야기들이 엮여져 전승된 것은, 전승 주체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에 대해 남다른 자각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공주나 부여의 유적 유물이 적지 않은데도 이 정도의 연결된 설화 자료들이

-
- 66) 이 구절이 들어있는 창건전설의 전 구성으로 볼 때, '입국마한'은 미륵사를 창건한 백제 무왕(무강왕)이 행한 '익산경영'으로 보아 (옛) 마한에 수도를 건립하였다고 봄이 옳을 가능성이 큼을 앞 장에서 말했다.
- 67) “大官寺井水爲血 金馬郡地流血廣五步 王薨” 『삼국사기』 권5, 신라본기, 태종무열왕 8년 6월. 이것은 익산지역의 재이를 무열왕의 죽음과 연결하여 기술한 것이다. 신라와 익산간의 특별한 정치적 관계나 백제부흥운동과 연관된 상징적 사건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그런데 당시 사비나 웅진은 당군이나 백제 세력 수중에 있었다. 백제를 멸망시킨 무열왕의 죽음에 앞서 그로 인하여 백제인이 흘린 피를 상징하는 핏물이, 신라 영역에 편입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백제의 또 하나의 수도로서 백제를 대표적으로 상징할 수 있는 이 지역에서 나타났다고 보고되거나 말해진 것으로 보면 족할 듯하다.
- 68) 이기백·이기동 공저, 『한국사강좌』 고대편 (일조각, 1982): 중판(1986), 299쪽. 신라가 고구려 부흥세력과 연결하여 당과 그와 결탁한 부여용의 백제군에 대항하려는 뜻이 내포되었다고 하였다. 필자가 보기에는, 이외에도 신라 수도와 상당한 거리가 떨어져 있고 궁궐 등 국가 체제를 수용할 만한 시설이 있는 곳으로서 익산지역은 망명 고구려국이 자리할 수 있는 최적이었다고 보인다.

전해지지 않는 점도 참고 된다.

금마저 일대 주민들은 7세기에 극적인 역사경험을 하였다. 무왕의 등장과 수도로서의 가능성에 들떠 있다가 망국의 나락을 만나(660) 신라에 편입되고,⁶⁷⁾ 안승이 이끈 4천여호 고구려인의 유입과(670)⁶⁸⁾ 국가 체제 운영으로 고구려인 보다 한 단계 더 차별을 받는 치욕감을 경험했을 것이다. 불과 십여 년 후 보덕국이 반란 끝에 진압 사민되어 흔적을 감추자(684) 망국의 절대 비애를 재삼 느꼈을 것이다.

이민족의 빈번한 침략은 고려인들의 공동운명체로서의 자각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어 고조선 인식 등이 구체화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처절한 역사경험을 단기간 내에 이중 삼중으로 겪은 통일신라기 금마저의 백제계 주민들이 위기에 처한 자신들의 정체성을 깊이 의식했을 것은 당연하다. 고장의 역사를 돌아보는 중에 재미있고 환상적이며 진평왕도 공경했다는 사동왕이야기에 위로를 얻고, 미륵사 창건 전설을 말하며 동방 최대 사찰이 자리한 고장을 의미 있게 생각했을 만하다. 그리고 그들은 주인공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이 이야기들을 잊지 않도록 그리고 구연(口演)하기 좋게 구성에 약간의 손질을 하여 한 이야기처럼 엮어 전승하였던 듯하다.⁶⁹⁾ 물론 은연중에 미륵불과 같은 존재가 이 지역에 다시 솟아오르는 기대를 담았을 듯도 하다.

통합결과 이 전체 설화는 성격이 달리 보이게 되었다. 미륵사 창건 연기설화로서 이해될 소지가 커졌다. 이 전체 설화는 거대한 미륵사와 분리할 수 없는 설화로서 위상을 갖게 되어 『삼국유사』에 수록되는 등 이 설화의 전승과 보존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고 여겨진다.

69) 통일 후 금마저 일대 백제계 주민들이 이 모든 설화(㉠㉡)를 결합 형성시켰을 가능성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망국 후 그들에게는 '내복계' 민담의 구조를 크게 바꾸는 작업까지 할 만한 동력이 될 흥이 없었다. 기존 이야기들을 엮어 모아 전승하며 정체성을 확인하여 유지할 방향을 모색하는 정도에 그쳤다고 보인다.

70) 신종원, 앞 논문, 35쪽. 이 기사는 사실성과 거리가 멀다고 보고 뒤에 백제 건축 기술에 대한 신라인들의 열등감에서 나온 변용이라고 보았다.

한편, 자료 ㉔ 말미의 “진평왕이 백공을 보내 도왔다”는 내용은 통일신라기 신라인의 문헌적 정리 시에 있었을 약간의 윤색 결과일 가능성이 있다.⁷⁰⁾ 일연이 말한 ‘고본’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도 생각된다. 백제계 인들에 의해 결합 구전되던 전체 설화에 대하여 문헌적 편집 등이 있었다면, 앞 서동왕 민담에 보이는 진평왕이 당연히 사위와 딸이 추진한 미륵사 건축에 도움을 주었으리라는 추정을 하고 이를 추가 기록했을 가능성이 없지 않은 듯하다. 진평왕의 도움과 관련된 설화 화소가 전혀 없이 간단한 단문 기록에 그친 것은 편집자의 단순 개입·윤색에서 연유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다.

신라인 편집자의 윤색 가능성은 ‘무왕 조’에 보이는 다른 내용에서도 추정해 볼 만하다. 사동이 신라의 수도로 간 것을 ‘서울로 오다[來京師]’라고 하고, 다시 돌아가는 데 ‘백제에 이르러[至百濟]’라고 하였다.⁷¹⁾ 일연(一然)의 소위일 가능성도 없지 않으나, ‘고본’을 의식하여 보면 통일신라의 문헌 편찬자의 손에서 윤문되어졌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여겨진다. 신라왕과 공주가 나오는 신라 우위의 구성 같기도 하며 대사찰의 전설이기도 하니,⁷²⁾ 설화는 크게 윤색되지 않은 채 정리 기록되었을 듯하다. 그 일은 정부보다는 개인이나 사찰 등에서 있었던 것이 아닐까 조심스런 추정도 해본다.

71) 이내옥, 「미륵사와 서동설화」 『역사학보』 188 (역사학회, 2005), 41~42쪽 참조.

72) 통일기 신라 정부가 미륵사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은 『삼국사기』 권8, 신라본기, 성덕왕 18년(719)에 미륵사에 벽락이 떨어진 사실을 기록하고 있음에서 알 수 있다.

IV. 맺음말

『삼국유사』 ‘무왕 조’의 설화는 3개의 이야기가 합쳐진 것이다.

7세기 초 금마저 일대 백제인들은 혼인 화소가 들어있는 소위 ‘내복에 산다’ 계 민담이 유전되고 있는 중에, 실감나고 재미있게 하기 위하여 가깝고도 먼 이웃 신라의 진평왕을 주인공 선화공주의 아버지로 설정한 듯하다. 본래 민담에서 선화공주의 빈천한 남편으로 나올 서동은 왕위에 올라야 되니 백제왕으로 설정하게 되었던 듯하다. 이것은 흥미를 돋우기 위한 것이고 구성체계상에서 오는 귀결이기도 하였으나, 무엇보다도 열망하였을 전쟁의 종식과 평화의 도래를 위한 것이었다. 두 적대적 왕실의 결혼을 통한 평화 실현은, 신라와의 진출입로에 자리한 군사적 요충지에 살아 신라의 풍문도 다소 알았을 민중들이 상상해 낼만한 평화를 위한 순진한 방략이었던 것이다.

자국 왕에 대한 당연한 관심의 고조와 존경심에 의해 민담은 조연이었던 서동을 주인공으로 하는 구성으로 변한 것으로 보인다. 무왕의 탄생신화를 가져와, 민담에 있던 생업과 관련하여 얻은 이름일 서동을 아명으로 하였다고 하며 넣어 연결을 시도하였다. 이 민담은 나제 두 나라 국왕을 실물(진평왕)과 상징적 인물(서동)로 등장시켜 현실감 있고 긴장감 있는 사실 같은 설화로 유포되어 생명력을 발하게 되었다.

무왕 익산 경영의 핵심 사업의 하나였을 미륵사가 건축되고 20년 내외가 지나서 백제는 멸망하였다(660). 10년 후에는 고구려인들의 집단 이주로 금마저 주민들은 지역의 주도권을 잃고 이중의 망국을 맞보았다. 그리고 이용가치가 다한 고구려계 보덕국인들이 14년 만에 반란과 함께 진압되고 사민되자(684) 망국의 비애를 다시 절감하게 되었다. 이렇게 한 세기도 못되는 세월 내에, 수도로서의 건설이 주는 자부심과 이중 삼중 망국의 절망감의 교차는 한 지역 주민들이 경험할 수 있었던 격심한 역사체험이었다. 이에 백제계 주민들은 위기에 처한 고장의 정체성과 역사를 재인식하게 되었을 것이다.

재미있는 서동왕의 결혼과 즉위를 말하던 이야기에 위로를 받고, 미륵 삼존이 나타났다는 미륵사 창건 전설에서 성스러운 고장으로서의 자부심과 미래의 작은 희망까지도 얻어 안도하였을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그리고 잊지 않고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 다소 성적이 다른 이야기를 약간의 구성상의 손질을 가해 하나처럼 엮어 말했던 것으로 보인다. 앞 이야기에 있던 용화산 사자사의 지명법을 다시 출현시키고 '입국마한'의 역사과정을 삽입하여 설화의 연결을 시도했던 듯하다.

그런데 이러한 통합결과 이 전체 설화의 성격이 달리 보이게 되었다. 미륵사의 창건 연기설화로 이해될 소지가 커졌다. 이러한 변화는 이 설화의 전승 보존을 위해서 결과적으로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여겨진다.

백제계 금마저 일대 주민들이 설화 체계를 하나로 통합하여 향유 전승하였다고 보이나, 통일신라기 신라인의 손에 의해 문헌상의 편집이 있었던 흔적이 없지 않다. 백제 이야기인데도 신라 수도로 간 것을 '수도로 오다'라고 표현하였으며 사실과는 거리가 있는 "진평왕이 백공을 보내서 도와주었다"라는 기사가 사연도 없이 단출한 사무적인 문장으로 글의 말미에 첨가되어 있다. 일연이 '무왕 조에서 언급한 그 '고본'의 편찬과 연관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물론 '무왕 조'에는 일연의 윤색과 정리가 가미되었다. '무강왕'을 '무왕'으로 교감하고 '입국마한'을 산삭하여 '역사화'를 위한 그의 윤색 강도가 높았을 것 같은 감을 주지만 설화의 구성을 바꾸는 정도는 아니었다.

이 '무왕 조'의 설화는 민간에 유포된 민담에 일부 실제 인물이 설정되며 구성이 변하게 되어 허구와 사실의 계선이 모호하게 되었다. 그런데 혼인설화에서 말해진 내용은 '내복에 산다'계 설화의 기본 구성을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어서 사실로부터의 설화 생성 가능성을 높게 생각할 수는 없는 편이다. 설화의 배경이나 환경이라는 점에서 7세기 나제 간의 현실이 자리하고 있지만 사실 자체가 설화로 말해진 것은 아니다. 이 '무왕 조'에 보이는 전체 설화는 통일신라기에, 주인공이 같다고 볼 수 있는 앞의 서동왕 민담과 뒤의 미륵사 전설이 다시 합쳐진 것이다. 민담과 전설은 그

성격에 차이가 있고 사실의 반영 정도가 달라서 합쳐진 전체 설화에서 사실성을 분석해 내는 일은 더욱 어렵게 된 면이 있다. 따라서 이 '무왕 조를 자료로 한 역사 연구는 자칫 설화의 역사화란⁷³⁾ 원하지 않은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있음에 한층 유념해야 하리라 여겨진다.

주제어

서동설화(Seodong story), 무왕(King Mu), 선화공주(princess Seon-hwa), 미륵사(Mi'reuk-sa temple), 금마저(Geum'majeo)

투고일(2009. 10. 6), 심사시작일(2009. 11. 1), 심사종료일(2010. 2. 8)

73) 宋在周, 「서동요의 형성연대에 대하여」 『藏菴池憲英先生華甲紀念論叢』(장암선생화갑기념논총간행회, 1971) 960쪽. 고대사 연구 등에 인간 심리의 약점으로 말미암아 전설·설화의 내용을 기록대로 믿고 부연하여 그것이 도리어 역사화되는 경향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참고문헌]

- 노중국, 『백제정치사연구』, 일조각, 1988.
- 이기백·이기동 공저, 『한국사강좌』 고대편, 일조각, 1982.
- 황패강, 『항가문학의 이론과 해석』, 일지사, 2001.
- 顏之推/林東錫 역, 『顏氏家訓』, 고즈원, 2004.
- 강민식, 「서동설화의 생성과 전개」 『先史와 古代』 19, 한국고대학회, 2003.
- 강봉원, 「백제 무왕과 '서동'의 관계 재검토」 『백산학보』 63, 백산학회, 2002.
- 김기흥, 「백제의 정체성에 관한 일 연구」 『역사와 현실』 54, 한국역사연구회, 2004.
- 김대숙, 「평강·선화전승의 신화적 성격」 『논문집』 8, 평택대학교, 1996.
- 김상현, 「미륵사 서탑 사리봉안기의 기초적 검토」
『대발견사리장엄 미륵사의 재조명』, 마한백제문화연구소·백제학회, 2009.
- 김식배, 「내복에 산다' 형 민담 연구」 『문학과 언어』 3, 문학과 언어학회, 1982.
- 김수태, 「백제 무왕대의 대 신라 관계」 『대발견사리장엄 미륵사의 재조명』,
마한백제문화연구소·백제학회, 2009.
- 김영태, 「미륵사 창건 연기설화고」 『마한·백제문화』 창간호,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1975.
- 김주성, 「백제 무왕의 정국 운영」 『대발견사리장엄 미륵사의 재조명』,
마한백제문화연구소·백제학회, 2009.
- 나경수, 「서동설화와 백제 무왕의 미륵사」 『한국사학보』 36, 고려사학회, 2009.
- 노중국, 「백제 무왕과 지명법사」 『한국사연구』 107, 한국사연구회, 1999.
- 노태돈, 「심한에 대한 인식의 변천」 『한국사연구』 38, 한국사연구회, 1982.
- 박현숙, 「백제 무왕의 익산경영과 미륵사」 『한국사학보』 36, 고려사학회, 2009.
- 변귀남, 「《雜寶藏經》의 本生故事 小考」 『중국어문학』 47, 영남중국어문화회, 2006.
- 송재주, 「서동요의 형성연대에 대하여」 『藏菴池憲英先生華甲紀念論叢』,

장암선생화갑기념논총간행회, 1971.

- 신동훈, 「구비문학에 나타난 부녀관계의 원형-‘집 나가는 딸’ 유형의 설화를 중심으로」 『구비문학연구』 30, 한국구비문학회, 2009.
- 신종원, 「사리봉안기를 통해 본 삼국유사 武王條의 해석」 『미륵사 사리장엄 연구의 쟁점과 전망』, 한국학중앙연구원 동아시아역사연구소, 2009.
- 오계화, 「백제 무령왕의 출자와 왕위계승」 『한국고대사연구』 33, 한국고대사학회, 2004.
- 유원재, 「백제사에서 익산문화유적의 성격」 『마한백제문화』 14,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1999.
- 이내옥, 「미륵사와 서동설화」 『역사학보』 188, 역사학회, 2005.
- 이도학, 「미륵사지 서탑 사리봉안기의 분석」 『백산학보』 83, 백산학회, 2009.
- 정운채, 「선화공주를 중심으로 본 무왕설화의 특성과 서동요 출현의 계기」 『건국어문학』 19·20합집, 건국대학교 국어국문학연구회, 1995.
- 조경철, 「백제 무왕대 神都 건설과 미륵사·제석사 창건」 『백제문화』 39,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2008.
- 최운식, 「무왕설화의 정착 과정」 『석주선교수 회갑기념 민속학논총』, 通文館, 1971.
 —, 「쫓겨난 여인 발복설화고」 『한국민속학』 6, 한국민속학회, 1973.
 —, 「佛典系 韓國民談 研究」,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8.)
- 현승환, 「내복에 산다' 계 설화 연구」, 제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2.
- 황수영, 「백제제석사지의 연구」 『백제연구』 4, 충남대학교백제연구소, 1973.
- 황인덕, 「내복에 먹고 산다' 형 민담과 '삼공본풀이' 무가의 상관성」 『어문연구』 18, 어문연구학회, 1988.

[Abstract]

The Historical Truth of the Seodong Story

Kim, Ki-heung

(Konkuk Univ.)

The Seodong story described in *Samguk Yusa* tells us a tale of the 30th king of Baekje, King Mu. The story is essentially a combination of three individual stories, have previously been separated, yet later merged.

In the early 7th century, the people who were living in Baekje's Geum'majeo region seem to have inserted Baekje's neighboring country Shilla into a folklore story of princess Seonhwa. They must have done so in order to make the story more dramatic and realistic. Shilla's king Jinpyeong is described as the father of the princess.

Seodong, husband of princess Seonhwa, would have been a poor person in the original folklore version, yet the character was turned into a person who in the end even ascended to the throne of Baekje. And it was because, after all, he was portrayed as the son-in-law of the Shilla king. Such changes to the story were done to raise the drama level of the overall story, and it led to a format change from the original narrative structure. But most of all, such changes represented the people's strong hope to end the war and finally invite peace. The idea that the royal families of both Baekje and Shilla, between which a hostile relationship continued for a long time, formed a matrimonial relationship and achieved peace with each other, must have come from the people of the region of

Geum'majeo, which was a vital traffic and defense point connecting Baekje and Shilla. They would have been occasionally getting wind of certain Shilla-related events, and used their imagination to concoct a story of reconciliation and peace. The birth tale of Baekje king's Mu, which would have been a separate story in the past, must have been added to the story as a result.

King Mu wanted to establish Geum'majeo as yet another capital for the dynasty. So he constructed a palace and also the magnificent Mi'reuk-sa temple. Yet two decades later, Baekje collapsed in 660, and this region became part of Shilla's territory. Also, the Goguryeo refugees who surrendered to Shilla moved over to this region and founded a country named Bodeok-guk in 670. The Baekje refugees of this region had to forfeit their sovereignty once again. And the fact that Bodeok-guk was forcibly dismantled by the Shilla authorities in 684 did not help them either. The Baekje refugees of this Geum'majeo region went through a lot in a considerably short period of time, and it was only natural for them to look back their own past, their own history and identity.

They began to examine the stories that were directly about their home region, and they would have decided to spread such stories with dramatic flavors which would facilitate such spreading of stories. So the marriage story between Seodong and princess Seonhwa, and the legend of Mi'reuk-sa temple's construction, were merged with each other.

It seems that the Baekje refugees of Geum'majeo built the overall story structure and shared and transmitted it together, but it also looks like the Shilla people during the Unified Shilla period provided a little editing and correction to the material as well. The lines were slightly modified, and

Goryeo's Il'yeon, head editor and author of Samguk Yusa, would have added some things as well.

As we can see, the Seodong story inside Samguk Yusa was a combination of a fictional story fondly recited by people, with real life elements(Shilla king Jinpyeong). As a result, the internal structure of the story changed, and the line between fiction and facts became difficult to ascertain. And in the Unified Shilla period, the legend of the Mi'reuk-sa temple was added to the tale of Seodong and princess Seonhwa's marriage. Folklores and legends are different in nature, and the level of presented factual details are different as well, so determining which part is based upon fact and which part is not is an extremely difficult task. In the meantime, we shall all refrain from resorting to a tendency considering contents of a myth or tale, as things that really happened.